

다문화 이주여성 한국어 교육과 자원봉사의 필요성

허연옥 유성다문화 가족사랑회 사무국장

1. 서언

최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면서 결혼이주여성들과 그 자녀들을 돕기 위한 각종 대책이 줄을 잇고 있다. 외국인 100만 시대를 훌쩍 넘어 대전시만 해도 다문화 가정이 3500여 가정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 가정의 이주 여성을 돕는 손길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본다.

현재 대전에는 다문화 이주 여성들을 교육하거나 돌보고 있는 단체로는 16곳이 있다. 정부 지원에 의해 세워진 센터도 있고, 지자체의 보조와 지원으로 다문화 이주 여성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곳도 있다.

클럽내 봉사 단체로 일하던 우리가 다문화 가정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국제로타리클럽에서 펼치는 영유아 사망률을 줄이는 핵심 사업 때문이었다. 다문화 가정의 이주 여성들의 교육을 지원하여 그 자녀들에 대한 교육 균등 기회의 제공을 통해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돕기를 목적으로 하는 아주 귀한 사업이었다.

관심은 곧 기회로 다가왔다. 충청남도와 대전시의 경계를 이루는 한 지역에 다문화 가정이 네 가정이 있고, 다른 지역의 한 가정까지 다섯 가정이 모여 교육의 손길을 기다린다는 것이었다. 의논 끝에 우리는 한국어 자원봉사 강사를 파견하기로 결정했고, 그 일을 계기로 회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다문화가족 사랑회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나 복지기관에 나가지 못하는 이

주여성들을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어 자원봉사 교사들은 우리말을 가르칠뿐 아니라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가르치며,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를 돌봐주는 일도 도맡아 하고 있다.

순수 비영리 단체인 다문화 가족사랑회는 봉사자들의 지원과 뜻있는 이들의 후원으로 이주 여성들의 한국어 습득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원활한 소통으로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지역 다문화 가정의 상황과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 그에 따른 자원봉사의 필요성과 현장 체험의 내용들을 기술하고자 한다.

2. 다문화 가정 이주 여성을 위한 한국어 방문 교육

2.1 다문화 가족 사랑회의 출발

현재 지역내에서는 다양한 통로로 다문화 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의 지원을 받는 곳도 있고 사업비로 운영하는 기관들도 있으며,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도 있다. 본 다문화 가족 사랑회는 순수한 다문화 이주여성들을 위한 자원봉사 단체로 이주여성들을 위한 한국어 방문 교육 역시 자원봉사 교사들에 의해 실행되고 있다.

로타리클럽에서의 자원봉사가 확대되어 올해 2월 개소식을 가지고 다문화 이주여성들을 위한 비영리 봉사단체로 독립했으며, 다문화 이주여성들을 위한 한국어 방문 교육에 큰 힘을 기울이고 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에 비해, 직접적 한국어 교육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가정이 많이 있어 자원봉사자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국제로타리 다문화 가족 사랑회가 출발하게 된 것이다.

다문화 가족 사랑회를 출범시키며 처음 시작한 일은 주소를 건네받은 다문화 가정 250여세대에 직접 전화해 교육 희망자를 모집하는 일이었다. 또한 그와 동시에 한국어 자원봉사 교사를 모집하는 일을 함께 시작했다. 그에 따라 현재, 30여 가정에 20명의 자원봉사 교사들이 기관이나 센터 교육에서 소외되어 있는 다문화 이주 여성들에게 한국

어를 가르치고 있는 중이다. 관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자원봉사자들이 사랑과 헌신으로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22 방문 교육의 필요성

대전시에는 현재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을 위한 지정지원센터가 대전시와 대덕구 두곳뿐이고, 각 구청에서는 복지관을 통해 약간의 교육지원이 되고 있지만, 이것으로 이주여성들의 한국어 교육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최근 지역의 다문화가정 250여 곳을 전화 방문 조사한 결과, 남편이나 가족들의 염려나 영유아족들의 돌봄을 이유로 한국어 정규교육 과정에서 소외되어 있는 이주 여성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다문화센터나 복지관을 찾지 못하는 대다수의 이주여성들과 가족들은 한국어 교들과 직접 방문 교육을 통한 맞춤형 방문 한국어 교육을 희망하고 있는 바, 센터나 복지관 등 기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다문화 이주여성들에 대한 한국어 방문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23 다문화 가족 사랑회의 한국어 방문 교육

다문화가족 사랑회의 한국어 방문 교육은 자원봉사 교사들에 의해 주 1-2회 이루어지고 있다. 자원봉사 교사로 등록된 사람은 20인이며, 현재 유성구 신동과 봉명동, 대정동, 진잠동, 원내동, 지족동, 노은동, 송강동, 자운대, 신탄진 등 15개 방문 교육팀을 운영하고 있다.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 돕기 및 유아 돌보기 등 효과적인 자녀교육법 등을 알려주고 가족 관계 상담 및 관계 개선을 위한 조언도 아끼지 않고 있다.

한국어 방문 교육의 목적은 다문화 이주 여성들이 이 땅에 가족으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고 가족간 의사소통과 한국 생활에 있어 불편함을 덜어주고자 함에 있다. 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은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 다문화 이주 여성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자원봉사 인력으로 대처해서라도 소외됨 없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다문화가족 사랑회는 한국어 교육 뿐 아니라 이주 여성들을 위한 취미 교실

운영으로 우리 역사와 문화, 음식 등의 이해를 돕고 자국의 문화를 교류하고 나누게 함으로 다문화 이주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돕고자 한다.

2.4 다문화 가족 사랑회의 자원봉사 현황

○ 사업명 : 주사업. 다문화가정 이주 여성 맞춤형 한국어 방문교육

- 시기 : 매주 1회
- 장소 : 대전시 전역. (현재, 15개 방문지역 있음)
- 참석 : 한국어 교육 희망 이주여성, 한국어 방문지도교사, 아이돌보미교사 등
- 내용 : 대전시 전역에 다문화센터나 기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다문화 이주 여성들의 교육소외지역을 조사, 직접 방문형 맞춤교육을 실시. 자원봉사를 통한 한국어 방문지도교사 및 자녀학습지도 교사 파견.

○ 사업명 : 다문화가정 이주 여성 맞춤형 컴퓨터 교육

- 시기 : 분기별. 단계별.
- 장소 : 삼성 SDS, 유성구청 등의 컴퓨터 교육장.
- 참석 : 다문화 이주여성, 컴퓨터 전문지도 강사, 아이돌보미교사 등.
- 내용 : 방문교육 신청 조사 중 이주여성들의 컴퓨터 교육에 대한 지원 요청으로 인해 실시 계획하게 됨.
초급-중급-고급 각 단계별. 프로그램별 실시예정.

○ 사업명 :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전통혼례 축제

- 시기 : 연중 1회 (지역축제시 실시함)
- 장소 : 유성온천 야외무대
- 참석 : 회원 및 미결혼 다문화 가정 다섯쌍.
- 내용 : 결혼을 하지 못한 다문화 가정 부부들을 위한 전통혼례 실시.
캄보디아 챔찬티와 이종필씨부부, 베트남의 도녹빅과 나원흠씨부부,
베트남의 쿠엔부부, 필리핀의 노이미델보 부부,
전통화장, 우리옷 한복, 결혼 앨범, 신혼여행호텔숙박권 등
자원봉사 무료 제공.

○ 사업명 : 다문화 가정 이주 여성과 함께하는 명절 음식 만들기.

- 시기 : 2009. 9-10월. 추석전.

- 장소: 대전시청 또는 구청광장.
- 참석: 150여명. 회원 및 자원봉사자들과 다문화 이주여성.
- 내용: 독거 어르신 돕기를 위한 명절 음식 세트 만들기. 300세트.
산적, 동그랑땡, 버섯전, 생선전, 송편 등.

○ 사업명 : 한국 문화의 이해. 다도 시연

- 시기: 매월 1회
- 장소: 다문화가족사랑회 사무실
- 참석: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들과 회원들.
- 내용: 다문화 여성들에게 한국 차문화를 이해시키고 상호 친목도모.

○ 사업명 : 다문화가족사랑 취미교실 운영

- 시기: 회원들의 희망과 회원 충원시 상시.
- 장소: 다문화가족사랑회 사무실
- 참석: 희망자. 각 교실 20인 이내.
- 내용: 회원들과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의 교류의 장으로 전통떡, 한국요리강
습, 다도예절강좌, 노래교실(민요포함), 리본공예, 비누공예, 종이접기,
퀼트 등 실시 예정.

○ 사업명 :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사랑 축제

- 시기: 연중 1회. 9월
- 장소: 다문화가족사랑회 교육장.
- 참석: 다문화 이주여성들과 회원들, 자원봉사자들.
- 내용: 다문화 이주여성과 회원 및 가족들 대상의 가족사랑 특강
부부의 의미와 가족의 의미, 자녀교육법, 대화법, 한국전통가족의 의미
등 가족사랑 4회 강좌를 통해 이주여성들과 회원들의 가족사랑 나눔의
장이 될 것임.

○ 사업명 :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송년 다문화교류 대축제

- 시기: 연중 1회. 12월중.
- 장소: 다문화가족사랑회 교육장 외.
- 참석: 다문화 이주여성들과 회원들, 자원봉사자들.
- 내용: 다문화 이주여성 가족들과 회원 및 자원봉사자 가족들의 다문화교류축제.
회원중심 각 나라 의상쇼와 각 나라 전통음식 나눔 및 국가별전통 공연등.

3. 자원봉사의 필요성

3.1 자원봉사의 의미

자원봉사란, ‘스스로 원해서(自願)’ 나누고 섬기는 일(奉仕)이다.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나서서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애쓰는 것”으로 풀이되기도 하며, 자원봉사자 불런티어는 헬라어로 “이웃을 위해 신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라 한다. 그래서일까? 자원봉사자들의 미소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으며 자원봉사의 땀방울만큼 값진 것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특히나 다문화 이주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는 이 시기에 그들을 위한 헌신적인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자원으로 봉사하는 정신이 사회의 근간을 이루어왔다.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는 계조적은 삼한시대에 성행하였으며, 이는 순수한 주민협동 조직으로 취미나 그 밖의 공동의 제례, 회식같은 행사를 통해 마음을 같이 해왔다. 특히 신라시대에 번창하여 오늘날 까지 유사한 형태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신라시대에는 계 이외도 두레라고 하는 촌락단위로 조직된 농촌 사회의 상호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협동체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상호협조정신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삼국시대의 자선사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불교의 시혜정신, 고구려시대 때 춘궁기에 국가가 양곡을 농민들에게 대여했다가 가을추수기에 회수하는 진대법, 고려 조선시대의 풍년에 곡물이 흔하면 값을 올려 사들이고, 흉년에 곡물이 귀하면 값을 내려팔아 물가를 조절한, 상평창 등은 그 시대 사회복지적인 노력으로 우리나라 자원봉사의 기초가 되고 있다.

조선 시대에는 권선징악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만든 향촌의 자치 규약인

향약이 있었는데, 향약의 4대 덕목인 덕업상권(德業相勸), 과실상규(過失相規)

예속상교(禮俗相交), 환난상휼(患難相恤) 중,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서로 도와야 한다는 환난상휼 정신 또한 현대 자원봉사 정신의 기본이 된다. 예로부터 환난(患難)은 첫째는 수재와 화재요, 둘째는 도적이요, 셋째는 질병이요, 넷째는 사망이요, 다섯째는 외롭고 약함이요, 여섯째는 없음으로 억울하게 당함이요, 일곱째는 가난으로 오늘날 소외된 이웃들의 어려움과 무관하지 않다 하겠다.

우리 역사의 맥을 이어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마음은 소외된 이웃의 희망이 되고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본다.

32 자원봉사자의 역할 및 자세

1) 자원봉사자는 누구인가?

- ① 자원봉사자는 시민의 사회적 책임을 회복하는 활동가이다.
- ② 자원봉사자는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활동가이다.
- ③ 자원봉사자는 불의, 불신, 불안, 불쾌, 불편, 불합리에 맞서 활동한다.
- ④ 자원봉사자는 '공동체' 정신을 되살리는 활동가이다.
- ⑤ 자원봉사자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한다.
- ⑥ 자원봉사자는 자발적인 시민이 만드는 민주사회 운동이다.

2) 개인적 역할

- ① 사람을 돕는 활동(대인서비스 제공) :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집단과 직접 대면해서 관계를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로서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상담, 개별지도 및 집단지도, 그리고 일상생활의 잡다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일이다.
- ② 업무 및 행사지원 활동 : 사회복지시설 · 기관 및 환경 · 소비자 보호단체 등에서 서류분류 및 정리, 접수업무, 전화응답, 우편처리 등의 사무를 처리하거나 행정적 업무를 지원하는 일이다. 그리고 홍보활동 및 모금활동 등 각종행사를 지원하는 일이다.
- ③ 정책결정 및 자문역할 :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정책결정을 위한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기관의 존속과 발전에 기여하는 일이다.

3) 사회적 역할

- ① 문제예방 · 치료자로서의 역할 : 사회문제 및 욕구의 발견과 더불어 사회문제를 예방 · 통제 · 치료하는 기관의 방침을 결정하거나 직접 보완적 서비스 활동에 참여하는 역할이다.
- ② 대변자 · 매개자로서의 역할 : 바람직한 사회변화와 적절한 사회적 서비스를 발전시키며 인간존중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도적 · 구조적 개혁을 주장하고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 ③ 변화 · 개혁자로서의 역할 : 바람직한 사회변화와 적절한 사회적 서비스를 받

전시키며 인간존중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도적·구조적 개혁을 주장하고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4) 전문 봉사활동

- ① 봉사하는 일에 따라 구분. 하는 일의 전문성 정도에 따라 구분한다.
- ② 전문가에 의한 봉사활동을 전문 봉사활동으로 구분.
의사나 약사, 변호사, 교육자 등 전문직의 봉사활동. 사회교육 등의 학습을 통한 전문 지식과 기술로 전문 봉사활동을 도와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한다.
- ③ 자원봉사 경력자가 전문가 역할을 하는 것. 장기 자원봉사자의 경우 가능.
- ④ 자원봉사단체 자체가 전문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호스피스 봉사단. 한방봉사단 등.
- ⑤ 국제 행사를 위한 외국어 통역, 관광안내 등 행사 지원을 위한 전문 봉사활동의 활성화. 지역 주민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

5) 자원봉사자의 자세

- ① 자원봉사자는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부터 시작한다.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쉬운 일, 관심 있는 일을 가지고 시작하면 상대방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
- ② 자원봉사자는 약속을 잘 지켜야 한다. 약속을 잘 지킨다는 것은 신뢰관계를 원활히 할 수 있다.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야 봉사활동 하기가 용이하다.
- ③ 자원봉사자는 항상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여야 한다. 계획을 세우면 사전에 준비를 하게 되고 일상생활에 무리가 가지 않고 상대방에게 여유를 갖게 한다.
- ④ 자원봉사자는 겸손한 마음과 상대방의 입장에서 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자원봉사활동은 자발적으로 무보수로 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대가나 보상을 원해서는 안 된다. 지나친 자만심이나 자신을 중심으로 한 입장에서 봉사활동을 하면 안 된다.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동반자적인 관계에서 서로 나누는 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 ⑤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깨달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자원봉사활동을 하다보면 알게 모르게 습득한 비밀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사항이다.
- ⑥ 자원봉사자는 계속 교육을 받고 활동을 점검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자원봉사활동을 한 것이 잘 했는지 못했는지 항상 점검하고 자기 성장, 발전을 위해서 학습하고 평가한다.
- ⑦ 자원봉사자는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자원봉사활동을 할 때에는

자신이 다른 봉사자들을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모범적인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⑧ 자원봉사자는 종교, 성별, 지역 등을 차별화하지 말고 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특정한 종교나 성별, 지역 등으로 인하여 봉사활동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자원봉사활동은 이웃과 사회와 국가를 위한 일이다.

⑨ 자원봉사자는 언행에 유의하여야 한다.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중에 사생활이나 금전에 관한 것이나 동정하는 말은 피하고 항상 태도와 말에 최선을 다하고 봉사대상자와 친숙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다문화 이주 여성들을 위한 자원봉사의 기대효과

1)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다문화 이주 여성들을 위한

다문화 가족 사랑회의 역할은 참으로 크다. 센터나 정규 교육 기관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농촌이나 도시 저소득 다문화 이주여성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이 실시되어, 한국어 의사소통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농촌이나 도시 저소득 다문화 이주여성들에게 소통의 즐거움을 주고,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우리의 정다운 시민이 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건전한 한 가정으로 육성되어 갈 것이다.

2) 골고루 잘살며 하나된 마음을 나누며

정다운 시민이 사는 지역 사회를 위해 정규 교육기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농촌 다문화 이주여성들을 비롯한 한국어 방문 교육 희망 이주여성들과 가족들과 함께하며 사랑과 행복을 나누는 살기좋은 지역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3) 다문화 이주여성들을 위한 한국어 직접 방문교육은

대부분의 자원봉사 강사들의 힘을 모아 이루어지고 있다. 직접 방문교육은 자원봉사 강사들에게는 지역민의 자긍심과 긍지를 갖게 하고, 이주여성들의 필요를 가까이에서 살피므로 가족의 여러 어려움을 상담해주고 해결 과정을 함께 찾아감에 있어, 더불어 사는 정다운 한국민의 정을 한껏 느낄 수 있을 것이다.

5. 맺음말

진실과 공평과 우정과 유익으로 건강한 사회를 지향하는 로타리 회원들에게 있어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은 로타리 클럽의 사회봉사적 지위를 높여줄 절호의 기회이며, 회원들이 진정한 사회의 봉사자로 직업인으로 그 사명을 다하며 초아의 봉사자로 차별화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날로 늘어가는 다문화 가정을 보며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의 자기 정체성을 찾아주고, 한국어를 가르치며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며 행복을 일깨워주는 일이야말로 진정 이 시대에 필요한 사명이 아닐까 싶다. 지면을 빌어 아무런 대가 없이 자원봉사자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한국어 자원봉사 강사들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 작은 힘이 모여 큰 일을 일으키는 자원봉사의 힘이 오늘도 그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봉사는 할수록 힘이 된다. 질병도 낮게 한다고 한다. 나보다 더 어려운 누군가를 위한 내 작은 손길이 어떤 이에게는 생애 최고의 희망이 될 것이라는 자부심, 바로 자원봉사로 행복을 열어가는 길이 되는 것이다.